

■ 6자회담 13개월만에 재개...北-美 접점 찾나

# 함께 열리는 BDA 실무회의 관건

(동결된 北 계좌 중 합법자금 해제 논의)



김계관 北 외무성 부상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콕델타아시아(BDA) 파동으로 지난해 11월 5차 1단계 회의가 파국을 맞았고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1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회담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6자회담의 핵심 상대국인 북한과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길 수 있을까.

일단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말처럼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담의 내용이 초기 이행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조합으로 귀결되는 만큼 이번에 나올 북한과 미국의 카드는 상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대치를 가장 높인다면 6자회담 및 BDA 실무회의가 동시에 타결돼 차기 회담부터 9.19 공동성명 이행절차를 본격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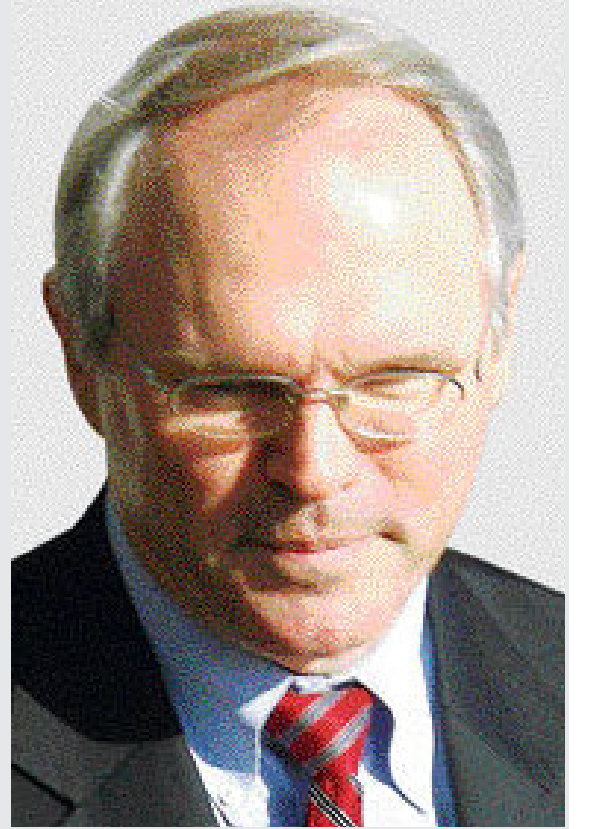
두 회의 합수관계 조율 쉽지 않을 듯

타결된 北핵폐기-상응조치 논의 진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28~29일 2차 북핵위기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장장 15시간에 걸쳐 서로의 생각을 모두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이런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낮지않은 않다.

당시 힐 차관보는 북측에 ▲영변 5MW 원자로 등 핵 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 관련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의 초기 이행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올 BDA 문제를 지렛대삼아 회담의 강약을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美 국무부 차관보

미국이 'BDA 문제는 범집행과 관련된 문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는 있지만 합법적인 북한 계좌 및 자금을 대해서는 동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카드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국이 BDA 실무회의와 6자회담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의결과와 미묘한 합수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않은 양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선 의장국인 중국이나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의 활발하고 창의적인 의견제진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대북 요구사항을 핵심설 가동중지와 IAEA 사찰 수용 등 2개항으로 좁히며 금융제재, 국교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별도의 검토회의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도 관련국 사이에서 깊이 검토되고 있다.

## 제이유 주수도회장 법정서 '공유마케팅' 열변

검찰, 이번주중 수사 중간발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가 적용된 제이유의 '공유 마케팅'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마케팅 방식이란 주장을 법정에서 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주씨는 최근 이 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제이유 관련 자들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공유마케팅의 우수성을 선전했다.

그는 "지금도 '소비자 소득'이 되는 공유 마케팅의 완성야말로 가장 위대한 마케팅의 탄생이라 믿고 있다. 공유마케팅을 통해 제이유를 전 세계에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새로운 국부 창출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전혀 의심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마케팅은 1천만원 이상의 물건을 사서 에이전트급 회원이 되면 120만PV(Point Value·물품 210만원 상당)를 얻을 때마다 상품과 함께 대금의 1.5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공유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 11만2천여명을 속여 투자금 4조5천240억원을 편취했다"고 규정했다.

주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면서 "결코 돈을 탐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욕심을 위해 의리를 배반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검 회계팀까지 총 동원해 약 6개월 동안 계열사 및 관계사까지 철저히 조사했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의도적으로 남의 재물을 편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제이유그룹의 엄청난 매들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기 때문에 단 한 달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업 정상화를 통해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번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중간 발표 내용에는 제이유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사법처리 여부 등이 포함되며 발표는 21~22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참여정부 대북지원 DJ 정부 2.2배"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규모가 햇볕정책의 원조격인 김대중 정부 때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나라당이 17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 규모는 2조546억원이었으며, 올해와 내년 전체 예산안을 포함하면 총 4조 1천4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령군으로 따지면 참여정부 5

년간 한해 8천289억원이 북한에 지원되는 셈으로, 김대중 정부 때의 2.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24%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1천855억원으로 올해(1조2천289억원)와 비슷하게 책정된다. 이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올해와 같은 6천500억원에 달해 '대북 퍼주기'를 위한 예산부담 과잉 논란이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 19.8도만 지켜준다면 마음은 허락할 수 있다

맛이신! fresh



특히받은 원연대나무 숲으로 정제된 깨끗하고 깔끔한 소주 - Chamisul fresh